

開 會 辭

오늘 저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연구소는 공동으로 우리 나라 헌정 50주년을 기념하여 그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앞날을 바라보기 위한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1945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이루어진 남북분단을 우리 민족이 슬기롭게 풀지 못하고, 서로 다른 국가체제로 갈라서 6·25라는 민족전쟁을 치르고 대치상태가 이어지고 있음은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되고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야욕으로 이른바 발췌개헌 등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헌법의 개정이 시작되어 정상적인 헌정사를 가꾸지 못하였고, 이는 4·19 혁명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열기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5·16쿠데타로 정치군인이 등장하면서 우리 나라의 헌정질서는 무너졌고 사회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앞세운 무리들이 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혀 오늘날 총체적인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고, 급기야는 IMF의 구제금융에 의존하여 국제적인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정 50년만에 그래도 투표에 의하여 정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민주역량이 성숙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워낙 고질적인 병폐가 심화되어 이를 헤쳐나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썩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 때마다 북풍이 조작되고, 북한에 대하여 판문점 총격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총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서도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반민주적이고 반역적인 행위를 한 자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묻고 의식개혁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헌정질서가 이처럼 얼룩진 데에는 우리 법학도에게도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일부 법학자를 비롯한 법률가들이

법의 기본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시세에 영합하였을 뿐 아니라 검찰이나 사법부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바른 길을 모색하고 우리 후손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덜기 위해서도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살려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의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962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헌법교수로서 우리 나라의 헌법학계뿐만 아니라 법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기시고 지난 8월 31에 정년으로 퇴임하신 琴浪 金哲洙 선생님의 기조연설은 고별강연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얼룩진 헌정사는 뒤안길로 물러나고 밝은 앞날이 열리기를 빌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시는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8. 10. 16.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長
梁 承 圭